



돌밥돌밥, 이제 그만하고 싶다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동안 제일 많이 한 고민을 꼽으라면 그건 진로 고민, 자식 고민, 인생 고민이 아니라 바로 끼니 고민, "오늘 뭐 먹지?" 일 것이다. 특히 요즘같이 밥 먹고 돌아서자마자 또 밥을 해야 하는 "돌밥돌밥" 상황은 거의 끼니의 늪에 빠져버린 것만 같다.

1.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간다. 아이들이 제각각 물어본다. "엄마, 아침 뭐 먹어?"
2. 오전 10시 30분부터 아이들이 제각각 물어본다. "엄마, 오늘 점심 뭐 먹어?"
3. 오후 2시부터 아이들이 제각각 물어본다.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어?"

코로나19 상황이 나빠질 때마다 아이들 학교와 학원 모든 것이 중단되었고 나는 선택의 여지없이 매일 아이들의 삼시 세끼를 챙겨 왔다. 물론 배달음식, 간편식, 반조리 식품, 남편 찬스 등을 적극 활용했지만 밥때가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아... 뭐 먹지?' 하는 고민에 빠져야만 했고 어쩔 수 없이 뭔가를 결정하고 만들어 내야만 했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건 정말 상당한 에너지 소진해야만 하는 일이다. 올해로 결혼 17년 차지만 여전히 무슨 요리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즐거움보다는 피곤함에 가깝다. 시작부터 끝까지 부산하게 움직여 겨우 한두 요리를 완성해 봤자 결과물은 초라하고 나를 맛있게 되었다고 뿌듯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그저 그럴 때도 많다. 차라리 냉동 피자를 데워 주거나 스펀지를 구워 줄 때 반응이 더 좋을 때면 화딱지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다. 게다가 아이들 입맛은 또 얼마나 제각각인지.....

하늘로 유학 간 첫째는 또래보다 몸집이 작은 편으로 특별히 가리는 음식은 없었지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과식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 아이가 나보다

많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메뉴는 싸구려 맥 앤 치즈였다. 도저히 느끼해서 두 손가락 이상 못 먹을 것 같은 셋 노란 맥 앤 치즈를 맛있게 죽겠다는 표정으로 한 사발씩 씹씹 굵어 먹는 모습이 늘 신기했다. 아이는 방학하면 먹을 거라며 아껴둔 맥 앤 치즈 한 박스를 결국 먹지 못하고 떠났다. 방학을 한 주 남겨놓고 말이다.

우리 집 유일한 딸, 밥을 좋아하는 둘째는 우리 집에서 아저씨 입맛으로 통한다.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카레나 찌개를 밥에 비벼 먹는 것이다. 아무리 맛있어도 먹기 번거로운 음식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들은 없어서 못 먹는 새우나 게도 발라 먹기 귀찮다며 동생에게 양보하며 선심을 쓰곤 한다. 밥을 좋아하다 보니 고기 한 점도 밥 없이 먹지 않는다. 배부르니 이제 남은 고기만 먹으라고 해도 밥이랑 같이 먹어야 한다고 밥을 더 달라고 한다.

셋째는 누나와 달리 새우, 게, 뼈에 붙은 고기도 잘 발라 먹는다. 하지만 우유, 요구르트, 바닐라 아이스크림, 생크림 등 우유 맛이 나는 것은 일체 먹지 않는다. "우유 먹어야 키 크다"는 옛말이 전혀 허튼소리는 아니었는지 (전문가는 우유와 키는 상관 없다고 했지만) 학교에서 급식을 1등으로 먹고 집에서 고봉밥을 먹지만 키가 제 학년에서 제일 작은 아이이다. 전문의도 찾아갔는데 결핍된 영양소도 없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나이가 4살 반인 걸 제외하고 다른 문제는 없다고 했다. 올해 4학년이 되는데 본인도 이제 슬슬 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넷째는 밥을 좋아하지 않는다. 식사할 때 늘 좋아하는 반찬 위주로만 먹다 보니 남들이 식사를 끝낼 무렵에도 반찬만 동이 나고 밥은 절반씩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어릴 때는 탄수화물 섭취도 중요해서 밥도 꼭 먹

어야 한다고 아이를 타이르긴 하지만 밥보다 반찬을 좋아하는 건 나를 닮은 것 같다. 나도 밥을 많이 먹어서 금세 배가 차 버리면 괜히 억울한 생각이 든다.

아무튼 이렇게 아이들 저마다 입맛이 다르고 선호하는 것도 다르다 보니 식사를 준비하기 전 남들보다 고민이 더 깊을 수밖에 없다. 라면 하나를 끓여도 아직 라면 못 먹는 아이를 위해 짜파게티, 매운 거 못 먹지만 라면 좋아하는 아이를 위해 순한 라면, 얼큰하게 먹고 싶은 어른들을 위해 진한 라면, 이렇게 세 종류는 기본이다. 국이나 찌개를 끓여도 누구 그릇에는 두부를 더, 누구 그릇에는 파 빼고, 누구 그릇에는 감자 빼고, 어른 그릇에는 청양고추 추가 등등 각기 다른 기호가 반영되어야만 한다. 엄마가 가족을 위해 밥하는 게 당연하지 삼시 세끼 차리는 게 뭐 대수라고 이걸 불평하냐며 탄지를 거는 사람이 있다면 일주일 정도 우리 집 주방장으로 초빙하고 싶다.

이제 정말 돌밥돌밥은 그만하고 싶다! 지난 일 년 마이 묵었다 아이가~ 부디 봄이 오기 전에,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상황이 호전되기만을 바란다. 작년 한해 학교에 가지 못해,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 마음껏 뛰어놀지 못해 힘들었던 우리 아이들이 부디 올해는 제대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오길 간곡히 바래본다. 아이들은 매일 학교에서 영양사님이 만들어주시는 급식을 먹고 나는 혼자 조용히 점심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된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하루 두 끼만 차릴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 삶은 얼마나 여유롭고 운택할까 상상해본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 1.5세 이주민'은 '재미교포1.5세 이주민'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REDPOINT REALTY

※ 새집 분양, 알바인 및 레이크포레스드 여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풀리톤 단층 하우스	요바린다 타운홈/콘도	부에나팍 단층 하우스	풀리톤 타운홈/콘도
방 3 화 3 1,562sf 대지 6,500sf \$550,000	방 3 화 3 2019년생 1,669sf 3층구조 \$730,000	방 3, 화 2 1,505sf 대지 6,320sf \$690,000	방 1 화 1 700sf \$290,000
풀리톤 단층 하우스	부에나팍 단층 하우스	요바린다 단층 하우스	부에나팍 단층 하우스
방 3 화 1 1,100sf 넓은 대지 6,100sf \$590,000	방 3 화 2 1,540 sf 대지 6,000sf 완전 리모델링 한집 turn key \$690,000	방 2 화 2 1,056sf 대지 5,000sf 1984년생 \$540,000	방 3 화 3 1,496sf 대지 5,150sf 한인 상권 가까운 곳 위치 \$590,000
풀리톤 단층 하우스	풀리톤 단층 하우스	풀리톤 단층 하우스	풀리톤 타운홈/콘도
방 3 화 2 1,583sf 대지 6,000sf 은행교회 아리랑마켓 가까운 곳 \$590,000	방 3 화 2 1,537sf 넓은 대지 7,000sf 좋은 학교 \$610,000	전체 리모델 방 5 화 2 1,665sf 대지 7,500sf 새 부엌, 새 appliances move in ready \$690,000	방 2 화 3 1,362sf 완전 리모델링한집 트로이고등학교 도보거리 \$540,000
알바인 타운홈/콘도	알바인 콘도	알바인 콘도	알바인 타운홈
방 2 화 3 새 마루 새페인트 1,460sf West Irvine \$650,000	2006년생 1,052sf 방 2 화 2 일층 위치 fully furnished \$520,000	방 3 화 4 1,590sf 2020년생 포돌라 Brisa \$728,000	2002년생 방 3 화3 1868sf 낮은 HOA 게이트 단지 \$789,000
*부에나팍 새집 분양	*브레아 새집 분양	*위티어 새집 분양	라미라다 시니어 단지
3층 구조 *교통과 위치 좋은 곳 1. 방 2 화 2.5 1,250sf \$500,000 부터 2. 방 3 화 3 1,500sf \$550,000 부터	3층 구조 2,253sf 방 3개 부터 방 5개까지 탁트인 오픈 플로워 플랜* 학교 좋은 지역 \$690,000~	2층 또는 3층 방1~방4 구조 900sf 부터 1,950sf까지 최신 시설 커뮤니티 센터 (피트니스, 수영장 등등)	방 1,2,3 (55세 이상) 24시간 가드 상주 넓은 게이트 단지 한국 마켓 가까운 곳 위치 \$290,000~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귀하의 집을 30일안에 매매를 성사시키는 전문팀을 갖춘 Listing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명예부사장
Honorary Vice President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DRE Lic.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949.501.8555
Irvine: 8 Corporate Park #220